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주·전남 정보공유 유치 공동 대응해야

대전·충남 가세 경쟁 치열
광주 35곳·전남 22곳 요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 기존 10개의 혁신도시에 대전·충남까지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질수록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은 55개로, 전체 539곳 가운데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 129개(24%), 영남권 107개(20%)의 절반 이하 수준인 셈이다. 지난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도권에는 153개 공공 및 정부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215곳(40%)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수도권에 제외한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등과 함께 혁신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 동력을 추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16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인구 증가, 세수 증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성과를 내면서 지역발전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 입주기업수 1000개, 가족동반 이주율 75%, 거주민 만족도 70점 등의 목표를 수립하는 등 기존 혁신도시의 질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수도권 과잉 지방 쇠

락'이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도시의 질적 성장과 함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의 2차 이전을 통한 '긴급수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동시에 추가 이전 공공기관으로, 각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5곳, 해양환경공단 등 22곳의 명단을 작성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시·도가 추가 이전 공공기관들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재집적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별 성격이나 지역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 광주와 전남에 분산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못한 상태다. 상호 명단을 공유하고 유치 전략을 함께 모색했던 과거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와는 달리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유치 경쟁을 벌이려는 미묘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군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전·충남까지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도 있어 전반적인 이전 가능한 기관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현재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검토된 바 없으며, 다만 혁신도시와 관련 성과 평가와 기존 혁신도시 조성계획 분석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5월 이후 각 정부부처, 균형위, 정치권 등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로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07년과 같이 각 부처별로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협의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들이 유치 희망기관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콜센터·복지시설 등 집단감염 예방 총력전



"광주서 치료 대구 확진자 가족 퇴원을 축하합니다" 광주시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1일 퇴원하는 코로나19 대구지역 확진자 가족들을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등 의료진들이 환송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코로나19 차단
고위험 시설 방역·물품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3월 들어 타 지역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콜센터 등 집단 밀집 공간과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을 하는 요양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콜센터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공통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구 광주시공사 건물 내 빛고을 고객센터에 이동 방역 봉사 차량을 투입해 방역작업을 벌였다. 사무실과 함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 시설을 소독하고 내부 방역에 필요한 소독제 등 물품도 지원했다. 빛고을 고객센터는 지하 5층, 지상 15층 전체 건물 가운데 3~12층에 모두 보험사 등 10개 콜센터가 입주해 942명이 일하는 밀집 지대다.

광주에는 64개 콜센터에서 70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자치구와 지역 모든 콜센터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하고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과 재택근무 확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과 동전노래방 996개소에 대한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 역시 콜센터만큼이나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양로원,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578곳에 이르고, 입소자 2만6100여명과 종사자 1만3700여명을 합치면 4만명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난달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 20여명이 쏟아지자, 26일부터 22개 시군과 손잡고 '집단시설 간 부공무원 1대 1 전담제' 운영에 돌입했다.

콜센터의 경우 전남에는 공공·민간기관이 각각 3곳씩 모두 6곳을 운영 중이다.

한편 광주와 전남은 이날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각각 15명과 4명의 누적 확진자수를 유지했다. 전국적인 누적 확진환자수는 7755명, 사망자는 63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월 18일 '지자체 공휴일' 지정 추진

광주시의회 조례 제정 나서
기업도 노사합의로 휴무 가능

광주시의회는 11일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슬기로운 '집콕 생활' 가이드 ▶7면
-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 KIA 브룩스·가농 '외인 원투펀치' ▶20면

시의회는 전날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만나 공휴일 지정에 의견을 모았다.

시장이 매년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며,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그리고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공휴일은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도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은 "5·18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시민 모두가 5·18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며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전승·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